

# 농정뉴스



## 올 쌀생산량 3,907 만섬 확정

### 장마·태풍등 재해로 18만섬유실

올해 쌀생산량이 3천 9백 7만 1천섬으로 최종 집계됐다.

농수산부에 따르면 당초 전국 2만개 표본지구를 대상으로 쌀생산량을 집계한 결과 3천 9백 25만 8천섬이었으나 가을장마, 태풍등의 이상날씨로 베어둔 벼의 유실·침수등 피해가 18만 7천섬인 것으로 재조사돼 이를 뺀 3천 9백 7만 1천섬을 올해 쌀생산량으로 최종 확정했다.

이같은 쌀생산량은 올해의 생산목표 3천 8백만섬, 평년작 3천 6백 20만섬을 크게 웃도는 것으로 지난 80년 쌀생산량통계가 현실화된후 작년(3천 9백 45만 7천섬)에 이어 연속풍작을 이룬 셈이다.

81년이후 연도별 생산량은

다음과같다. (단위=천섬)

▲81년=35,160 ▲82년=35,938 ▲83년=37,529 ▲84년=39,457

#### 개인 증산왕에는 경북 영덕 南鎭鎭

한편 단보당 평균생산량은 4백 56kg으로 전년도보다 7kg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통일벼가 단보당 5백 4kg으로 지난해보다 2kg이 늘어난 반면 일반벼는 4백 37kg으로 오히려 9kg이 줄어든 때문이다.

또 各道별 단보당 생산량은 ▲全化이 4백 99kg으로 가장 많고 다음이 ▲忠南 4백 96kg ▲全南 4백 71kg의 순이며 가장 생산량이 적은 지역은 慶南의 4백 5kg이다.

품종별 생산량은 통일계벼

가 1천 2백만 7천섬, 일반  
벼 2천 7백 1만 2천섬(나머  
지 발나락)이다.

### 營農 최우수 단지엔 충북 증원鶴城 단지

한편 올해 쌀 과학영농 최  
우 수단지로는 단보당 8백  
89.4kg을 생산한 忠化中原군  
薪尼면 見驕리 鶴城쌀과학영  
농단지(회장 金俊鏞)가 뽑혔  
으며 우수단지는 단보당 7  
백 96.9kg을 생산한 忠化保恩  
군炭釜면 下長리 眞味쌀과학  
영농단지(회장 李德熙)가 선

정됐다.

또 전국중산왕으로는 地帶  
별로 4명이 선정됐는데 중  
간지대에서는 단보당 978.7  
kg을 생산한 南鎭鎬州(37세  
慶北盈德군 知品면 新陽리) 평  
야지대 통일계로는 襄明烈씨  
(33세 · 京畿道平澤군 玄德면  
仁光리 9백 56.9kg) 평양지대  
일반계는 李鍾知씨(29세 · 慶  
北義城군 金城면 草田리 8백  
79.4kg) 산간지대에서는 金  
德銖씨(44세 · 慶北榮豊군 浮石  
면 愚谷리 8백 19.9kg) 등이  
영예를 안았다.

## 秋穀價 5% 인상, 950만섬수매 2 등기준 매벼가마당 29,450원 (54kg)

정부는 올해산 추곡수매값  
을 지난해 보다 5% 인상,  
매벼 54kg들이 한가마 2 등품  
기준 2만 9천 4백 50원으로  
결정하고 정부수매 8백만섬  
과 농협수매 1백 50만섬 등  
모두 9백 50만섬을 전량 현  
금으로 사들이기로 했다.

이번 수매가 5%인상률은  
지난해 3%에 비해 2%포인트  
가 높은 것이며 수매가격은

가마당 2천 8백 80원이 인상  
됐고 수매량은 1백만섬이 더  
많은 것이다.

농수산부는 이같은 올해 추  
곡수매방침에 따라 지난해보  
다 4백억원이 늘어난 1조  
6백억원을 들여 정부수매는  
10월 25일부터 내년 1월 31일  
까지, 농협수매는 11월 1일  
부터 12월 말까지 전량 현금수  
매키로 했다고 밝혔다.

수매량 9백50만섬은 정부가 신품종을 대상으로 8백만섬을, 나머지 1백50만섬은 농협이 일반미를 수매하게 된다.

특히 농협수매 1백50만섬은 쌀홍수출하기 쌀값지지와 단경기쌀값안정을 위해 지난해 계획보다 50만섬을 늘린 것으로 수매가격은 정부수매값을 기준으로 시중일반미값을 감안하여 추후에 별도로 결정키로했다.

이에따른 올해 주곡의 농가 수취가격은 별표와 같다.

◇올해산 벼 수매값

(54kg 한가마)

등 급	가 격
1 등	30,830 원
2 등	29,450 원
등 외	26,210 원
잠정등외	23,500 원

농협. 일반미 150 만섬수매

1 등벼(54kg) 31,580 원

농협중앙회는 정부의 올해 주곡수매방침에 따라 일반미 1백50만섬과 계약재배한 참쌀 20만섬등 1백70만섬을 자체자금 1천9백70여억원을 들

여 11월 1일부터 올해말까지 사들인다.

일반미수매값은 정부수매값에 출하비 7백50원을 가산하여 54kg 벼 1가마당 1등급 3만1천5백80원, 2등급 3만2백원이다.

농협이 일반미를 수매하는 것은 수확기의 산지(產地)쌀값을 떠받치는데 목적이 있지만 사들인 이 쌀은 내년 단경기에 쌀값 안정용으로 쓰여지기 때문에 이번 수매에서는 쌀품질이 떨어지는 일부 품종을 제외하고 1, 2등급만 사들인다.

농협의 일반벼수매는 정부수매와 같은 규격으로 농산물검사소가 맡아서 검사하게 된다.

겨울철 영농자금 5 백24억 「농업개발」에 3백16억배정

농수산부는 26일 겨울철영농자금 5백24억원과 농업개발자금 3백16억원을 각 시도에 배정했다.

이번에 지원되는 영농자금은 겨울철 비닐하우스재배농가에 4백49억원, 客土(흙갈이)작업자금으로 50억원, 재

해농가에 25억원을 각각 쓰도록 했다.

농업개발자금은 △소득작물 개발에 1백17억원△복합영농시험사업에 83억원 △부업단지조성에 17억원 △농산물 유통가공에 32억원△농산기반조성에 15억원 △기타52억원씩 쓰도록 했다.

### 읍·面 단위 집단객토실시 30ha 기준 1개소씩운영

농수산부는 地力을 증진, 농산물을 많이 생산할수 있도록 내년에 4백80억원을 들여 6만 6천 7백ha의 농토배양사업을 벌이기로 했다.

농수산부가 마련한 내년

도 농토배양사업 확대 지침에 따르면 3백억원을 농민에게 용자, 客土사업(흙갈이)을 실시하고 논에 뿌려 地力을 높일수 있도록 土地改良劑인 석회 26만 5천t, 규산 33만t을 공급하고 벼짚갈기와 깊이갈이(深耕)를 대대적으로 실시키로 했다.

농수산부는 특히 집단적인 농토배양이 효과적이라고 보고 道당 1백ha이상규모로 1개소씩, 市郡에는 50ha이상규모는 1개소씩, 읍면에는 30ha내외로 1개소씩을 시범단지로 지정, 집중적으로 地力을 높이기로 했다.

질서.....

편한 것

자유로운 것

아름다운 것